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당대회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다. 대표경선에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나섰고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모두 10명이 후보신청을 했는데 현역의원이 4명, 원외에서 6명이 지원했다. 최고위원 4명 중 한 명은 여성 몫인데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후보는 이미 당선이 확정된 셈이라고 한다.

국힘 정당대회 ‘보수 재구성의 출발점’ 될까?

여론흐름은 '1강 2중 1약'이었다. 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에서 한동훈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찬성과 지지가 최소한 절반이상이고 높게는 70% 전후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社說

‘3중고’ 지역 건설업계 파산만은 막아야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가 ‘3중고’로 휘청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법인회생을 신청(법정관리)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에서 직접 매입하는 3대 자재인 레미콘 가격은 최근 50%나 올랐고, 철근과 단열재 가격도 30%씩 상승했다. 여기에 레미콘 운송업계의 ‘주 5일제’ 선언과 작업속도 연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도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종교칼럼



장현  
광주 중심사 주지

적당히 숲이 우거진 산책길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가방에서 물티슈 같은 것을 꺼내서 잠시 손을 닦는 듯하다가,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 땅바닥에 휘 버려 버린다.

안하무인하는 사회

간에 오르내렸다. 당시, 흥준표 시장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에 이준석 대표는 ‘누구도 흥 시장에게 ‘이강인 인성 디렉터’를 맡긴 적이 없다. ‘성숙’은 각자 알아서 하던 되는 일’이라고 되받아 쳤다.

아직도 줄세우기 기초의회 의장 선거라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무려 30년이 다됐지만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들은 의장 선출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할 것이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하는 놀이인 제비뽑기를 하더니, 이번 하반기 의장도 결국 선거 대신 추대 형식으로 진행키로 의결을 모았다고 한다.

기고



정명항  
재독 서양화가  
나주 레지던시 작가

폴란드 북부 발트해에 자리한 항구도시 그단스크는 유럽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소다. 전시 장소 ‘WL4’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무기 창고로 쓰이던 곳이다.

예술가가 행복한 도시

전 ‘목숨’을 관람하고, 5·18을 특별하게 공감했다. 당시 그는 폴란드로 돌아가면 2024년 5월에 그단스크 솔리다르노시치 기념관 전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코쉬쯔에서도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곳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내 작품이 보여주기 바라니 WL4 기획 덕분에이다.

無等鼓

할머니 집에 맡겨진 7살 아이는 치킨이 먹고 싶어졌다. 귀가 어두운 할머니는 땀별 속을 천천히 걸어 장에서 사 온 생닭으로 백숙을 끓여준다.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싸움에 뛰어드는 정치인도 늘고 있다. 이들은 날선 용어와 관련 법안을 꺼내들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집으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瀟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